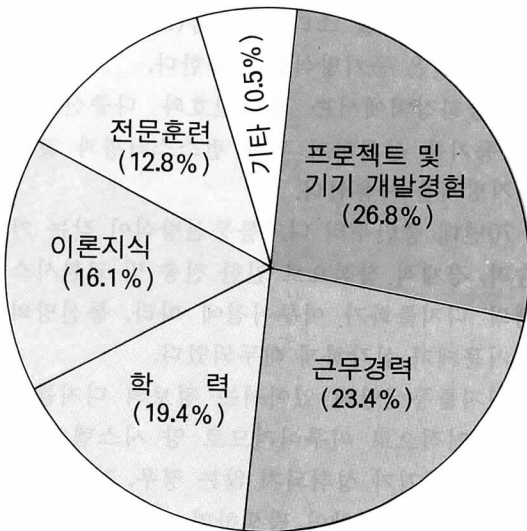


자료/그림으로 보는 인력실태①

협회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정보통신관련 업체 55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인력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이 결과를 발표했다.

본지는 이번호 부터 각 기업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그림을 통해 살펴본다 …… 편집자 註

I. 전문인력의 평가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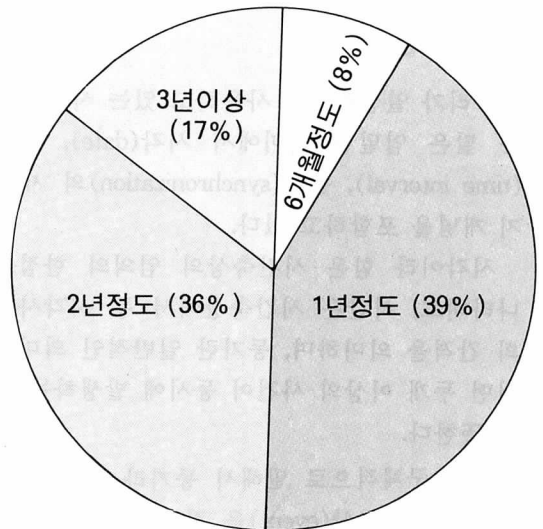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 전문인력 평가기준의 중요도

국내기업들이 전문인력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개발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상업체중 총 225개사가 응답한 내용을 보면 “프로젝트 및 기기개발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.”는 업체가 26.8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근무경력(23.4%), 학력(19.4%), 이론지식(16.1%), 전문훈련(12.8%), 기타(0.5%) 순으로 대답했다.

II. 전문인력 양성 소요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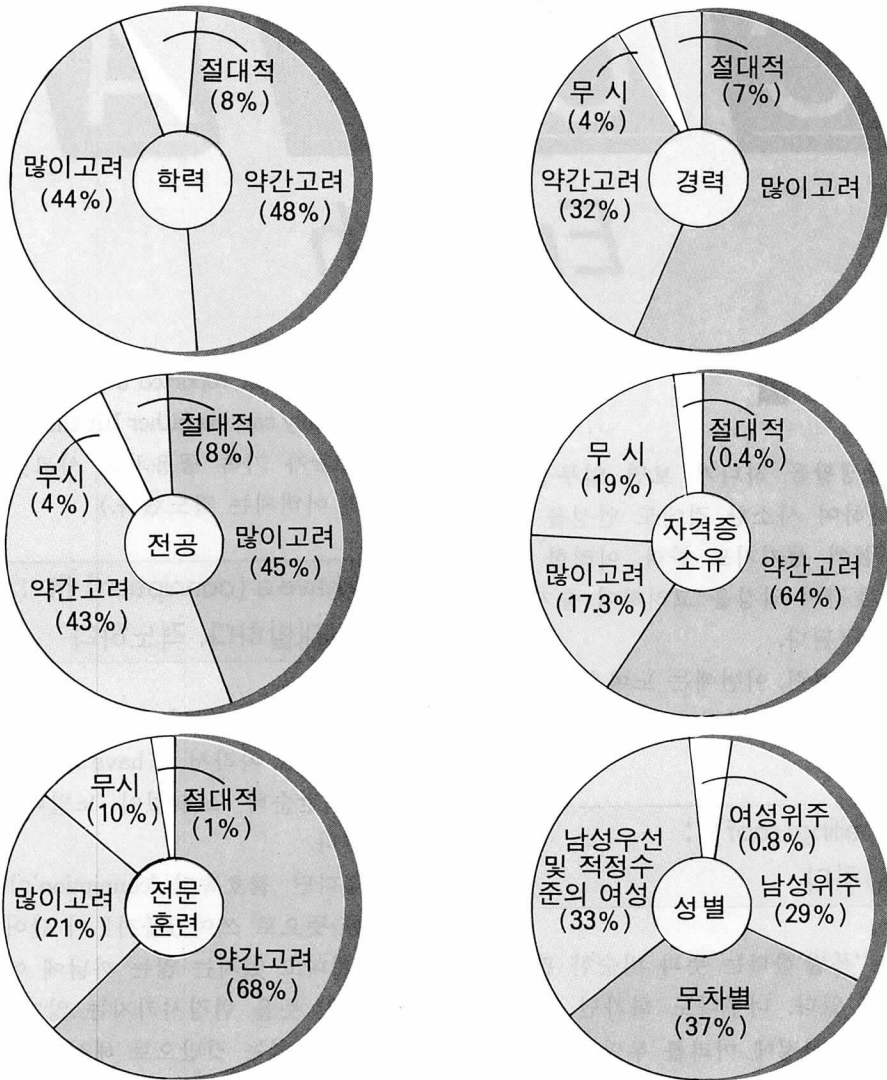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2〉 전문인력의 양성 소요기간

기업에 신규 입사한 사원이 숙련 기술인력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기까지는 248개 응답업체중 47%가 6개월에서 1년정도라고 한 반면, 53%정도가 2년이상 걸린다고 대답했다.

이같은 결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비용부담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산학연계교육의 강화 등 그 기간단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.

Ⅲ. 신규인력 채용기준



〈그림 3〉 신규인력 채용기준

신규인력 채용기준은 응답한 248개업체들 대부분이 학력, 경력, 전공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 대다수 업체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19% 정도가 무시한다고 응답해 산업분야의 다양화에 따른 자격제도의 재검토

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.

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는 62%가 남성위주 혹은 남성위주에 적정수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으며, 37%가 남여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.